

해방 후 재일조선 문학운동 -『조선 문예』와 『진달래』의 갈등을 중심으로-

마경옥

극동대학교 일본문화관광컨텐츠학과 교수

Literature Movement of Koreans in Japan after Liberation -Focus on conflict between 『Joseon Literature』 and 『Jindalrae』

Kyoung-Ok Ma

Professor, Department Japanese Culture Tourism Contents, Far East University

요약 패전 이후 195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서클문학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고,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주체도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와 주장을 문학운동과 연동하여 서클과 기관지를 통하여 생산·확장시켜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정치적 주체와 문학서클 운동과의 교류, 갈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 연구한 사례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련과 민전의 정치적 역학관계로 탄생한 '오사카 시인집단' 기관지『진달래』와 노선전환에 따른 조총련의 '재일조선 문학회' 기관지『조선 문예』의 성립과정과 두 잡지의 교류, 갈등, 해산 과정 등을 비교분석하여 그 실체를 규명했다. 즉, 해방 후 재일조선인 문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탈식민지화로의 끝없는 고민과 대립, 모순과 갈등의 실체를 '공화국공민과 재일', '주제와 창작언어'등으로 분석하여 '조총련과의 갈등'으로 결국 해산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파악된 1950년대 재일조선인들의 시대정신은 향후 재일조선인문학의 출발점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 재일조선 문학회, 오사카 시인집단, 민전, 조총련, 조선 문예, 진달래

Abstract After the war, the circle literature movement took place in Japan around the 1950s. The subjects of the national movement, the Korean-Japanese, have produced and expanded their political rights and claims through circles and organs in conjunction with the literary movement. However,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xchanges and conflicts between the political subjects of the Korean national movement and the literary circle movement as a concrete case to date are still insignificant. After liberation, the endless worries and confrontations to the post-colonialization of literary Koreans in Japan were analyzed as 'community with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opic and creative language', and as 'conflict with Korean association in japan'. The process leading to dissolution was analyzed. The spirit of the era of Koreans in Japan in the 1950s identified in this paper is expected to suggest a new direction for the starting point of study of the humanities in Japan.

Key Words : Korean-Japanese Literature Society, Osaka poet group, Korean-Japanese unification democratic front, Korean association in japan, Joseon Literature, Jindalrae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support of the 2019 Fellowship of Far East University (FEU2019R06)

*Corresponding Author : Kyoung-Ok Ma(bisangma@kdu.ac.kr)

Received December 16, 2019

Accepted February 20, 2020

Revised January 22,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1. 서론

1945년8월15일 이후 일본은 패전으로 기존의 가치체계가 붕괴되어 정치적 방향성을 잃은 대혼란의 시기였으나 재일조선인에게는 탈식민주의의 모색의 시기였다.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들은 확실히 지향할 바를 인식하며 점령군(GHQ)과 대결하는 양상으로 탈식민주의 민족운동을 확장시켰다. 재일조선인을 대표하는 '민단'(在日本朝鮮居留民團, 民團)과 '조총련'(在日朝鮮人總聯合會, 朝總聯)이 대두되기 전까지는 '조련'(在日本朝鮮人聯盟, 朝聯)과 '민전'(在日朝鮮統一民主戰線, 民戰)이 가장 큰 민족운동주체로서 활약하게 된다.

패전 이후 195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서클문학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고 서클기관지라는 이름아래 수많은 잡지가 생성·소멸되었는데,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주체도 자신들의 권리와 주장을 문학운동과 연동하여 서클과 기관지를 통하여 생산·확장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서클과 기관지는 1955년 '조총련'으로 노선전환을 한 이후, 정치와 문학적 입장에 따른 갈등이 더해져 큰 변곡점을 맞이한다. '조련'과 '민전', '조총련' 계열의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문학 활동은 그 규모와 지속성면에서 재일조선인에 의한 문학운동의 주류를 형성했다. 그 중 '민전'의 지도아래 있던 '오사카 시인집단'의『진달래』와 '조총련' 산하 '재일조선 문학회' 기관지『조선 문예』의 갈등은 재일조선인 문학운동사의 한 단면이었다. '조총련' 산하 '재일조선 문학회'는 1959년 해산되고, '문예동'(在日朝鮮人文藝術家同盟, 文藝同)으로 재결성되어 공화국의 관련단체가 된다. 그러나 1967년 공화국*이 유일사상체제로 이행함에 따라서 '문예동' 내부에서는 동요와 이탈이 시작된다.

1950년대 모국어에 의한 창작언어의 강요라든가, 정형화된 애국적 표현문제 등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재일문학자로서 자각하는 그룹과 1960년대 '조총련'의 조직논리에 맞서서 발표의 장을 잃게 된 그룹 등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비로소 일본문학 매체에 작품발표 기회를 얻게 된다.

* 북한의 정식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한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 및 미승인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국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북한'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재일조선인의 잡지를 기초자료로 재일조선 문학운동에 관한 논고이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재일조선인들이 북한의 정식 국호를 줄여 말하는 '공화국'을 사용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1950년대 '재일조선 문학운동'이라는 입장에서 '재일조선 문학회' 기관지『조선 문예』와 '오사카 시인집단' 기관지『진달래』가 민족운동의 정치적 주체와 연계하여 어떠한 성립, 교류, 갈등, 해산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재일조선 문학회'의 기관지는 잡지명만 남아있을 뿐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2018년 우노다 쇼야(宇野田 尚哉)의 노력으로 '재일조선 문학회'기관지『문학보』,『조선 문학』,『조선 문예』등의 문건**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진달래』와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련'과 '민전'의 조직논리와 가까운『진달래』와 '조총련'의 지시에 따른 재일조선인문학회의 기관지『조선 문예』와의 대립상황을 살펴봄으로서, 해방 후 재일조선인문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탈식민지화로의 끝없는 고민과 대립, 모순과 갈등의 실체를 밝히고, 재일조선인들의 문학적 원천이 되었던 '재일'이라는 정체성과 그들의 시대정신을 규명하여 재일조선인 문학의 출발점을 제시하려 한다.

2. 재일조선 문학회와 오사카 시인집단

미치바 치카노부(道場親信)는 일본의 1960년대는 '고도성장'과 '저성장'과 '생활보수주의의화'로 이어지는 단순한 개념으로 시대를 정의할 수 있지만, 1950년대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맥의 착종(錯綜)'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패전 후 정치적으로 좌우 '대중의 다양한 욕망'과 시스템전환으로 생겨난 '자율적인 생활양식'과 함께 공산혁명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자의 '서클운동'까지 더해져 '뒤섞임'의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다[1]. 이러한 사회적 공간에 좌익계열의 재일조선인들은 민족운동과 문학운동을 동시에 전개해갔다.

1948년1월 '재일조선 문학자회'·'예술가동맹'·'청년 문학회'·'백민사(白民社)'·'신인문학회'가 합류해서 '재일조선 문학회'를 결성한다[2]. '재일조선 문학회'는 1953년 자신들의 기관지로 김 달수를 편집인으로 한 일본어의『문학보』(文學報)를 발행하였으나, 1954년3월에는 잡지명을『조선 문학』으로, 발행인을 남 시우로 바꾸어 조선어로 발행한다. 1955년 민족운동 주체는 '조총련'으

** 2018년 우노다 쇼야는『재일조선 문학 관계사료1945—60』(재일조선인자료총서17 緑蔭書房)에서 해방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그동안 잡지이름은 전해지고 있으나 그 실상을 알 수 없었던 서클잡지들을 발굴하여 영인본으로 세상에 선보였다.

로 노선전환을 하고, 1956년 11월 『조선 문학』은 다시 『조선 문예』로 잡지명을 바꾸어 '조총련'의 문화정책을 그대로 반영한다. '조총련' 산하의 '재일조선 문학회'는 1959년 6월 '문예동'으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조선 문예』에서 『문학예술』로 다시 기관지명도 바뀌면서 공화국의 충실한 나팔수로 되어갔다.

한편 '오사카조선시인집단' 기관지 『진달래』는 일본공산당 산하의 조선인 공산당원을 지도하는 '민대'(民族對策部, 民對)의 활동 강령에 따른 정치적 작용으로 출발한 시지(詩誌)였다. 『진달래』의 회원은 조직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문학청년들의 모임이었는데, 창간멤버 대부분은 거의 시를 써본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58년 20호로 막을 내릴 때까지 그들만의 언어로 '투쟁 시'와 '풀뿌리 미디어' 그리고 '생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현실을 기록했다. 창간초기에는 정치적 입장에서 '반미' '반요시다' '반이승만'이라는 '3반 투쟁'이라는 극좌적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 프로파간다의 전투시가 많았다. 이후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계기로 창작주체의 시점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가족과 부모세대, 그리고 이웃으로 확장된다[3].

'오사카 시인집단'과 '재일조선인문학회'의 두 문학운동 주체의 생성과 소멸은 철저히 민족운동조직과 연동하여 전개된다. 이 두 문학운동 주체는 시기별로 정치이슈를 공유하며, 때로는 교류와 연대를 때로는 논쟁과 대립을 하면서 재일조선인 문학운동을 전개해 갔다.

1953년 '민대' 중앙의 문화정책으로 창간된 『진달래』와 '재일조선 문학회' 기관지로 일컬어지는 『문학보』는 "한국전쟁휴전 협정조인에 대한 특집 기사 및 작품 교류"를 하거나, '문단련'(在日朝鮮文化團體總聯盟, 文團聯)결성에는 두 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1954년 '재일조선 문학회' 기관지가 된 『조선 문학』창간호에서 김 민은「문학 서클운동에 더 큰 관심을 돌리자」는 글에서 일본전지역과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클운동은 "문학적 욕구에서 자주적으로 조직된 것"이며, '재일조선 문학회'는 서클운동을 "재일조선인 문학의 하나의 전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일조선 문학회'는 "지방에서 서클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도 자신의 문제로 포착"하지 못하고, 서클문학운동에 대한 무관심과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한다. 따라서 "서클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대중들의 문학적 욕망이 계기가 되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재일조선 문학회'는 전국의 재일조선인 서클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문학 서클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4]. '문단련'결성으로 두 그룹은 '문단련'의 산하 단체가 되었고, '민

전'의 지도 아래 더욱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 1955년 민족운동의 노선전환이후 '재일조선 문학회'는 '조총련' 산하 단체가 되면서 두 그룹 사이에는 균열이 시작된다. 1956년 『조선 문예』 제4호의 '조직보고'에 의하면 지부 회원 및 관리하는 서클지로 『진달래』를 언급하며 '재일조선 문학회'가 『진달래』를 지도하는 위치라는 것을 은연중 시사하고 있다. 1956년 김 시종의 『지평선』이라는 시집 출판으로 소위 『진달래』논쟁이 시작되었고, 『진달래』와 『조선 문예』는 논쟁의 각축장이 되었다. 1957년 『진달래』논쟁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1958년에는 '재일조선 문학회'의 상임위원들은 김 시종과 『진달래』에 대한 규탄대회도 개최하며 문학에 대한 지배우위를 확고히 한다. 『진달래』논쟁을 계기로 '조총련'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간의 갈등의 결과로 1959년 『진달래』는 해산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은 민족운동의 정치적 슬로건이 문학운동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재일조선 문학회'와 '오사카 시인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1 조련과 민전의 오사카 시인집단

1945년 8월 18일 강제연행을 포함한 재일조선인 200만 명의 해방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재류조선인대책위원회'는 10월에 '조련'으로 정식 출범한다. 이념에 관계없이 조직된 '조련'의 출범은 '패전을 맞이한 일본인'과 '해방을 맞이한 재일조선인'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중적 해방운동을 표방하는 '조련'은 우파의 '민단'****보다는 좌파의 사회주의자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재일조선인의 절대적인 지지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 1946년 4월 '재일본 조선거류민단'이 정식으로 발족되었고, 1948년 8월 이승만 정권 아래 대한민국 성립직후인 이 승만 정권과 GHQ의 주선으로 10월에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이 되었다. 1946년 10월 조선거류민단 초대단장으로 국수주의자)이 되었고, 이 강훈·원 심창이 중심멤버가 되었다. 처음에는 박 열과 건국청년회(건청)의 청년들이 모여서 민단을 형성하였으나, 1948년 이승만정부가 민단을 통제할 때 '건청'은 조직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후 이 승만 생각과 구상에 따라 식민지시대의 친일이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 승만 정권에 대한 충성도만이 지도부와 임원의 구성기준이 되면서 질적 변질이 일어났다. 따라서 이들은 48년 이후 이 승만 정권에서 이탈하여 조련활동에 접근해 갔다. 1949년 10월 박 열은 단장을 사임하고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이렇듯 우파의 '민단'도 '조련'에 합류했으나 이들은 소수 활동본자의 그룹이었고, '조련'의 실질적인 영향력과는 비교될 수 없었다. (가지무라 히데키(2014) PP.36-95 참조)

‘조련’은 ‘한신 교육투쟁’을 비롯한 민족적 운동으로 점령군에 대항하면서 점령군에게는 불편한 방해물로 느껴졌고, 1949년 ‘단체 및 규제령’에 의해서 ‘조련’은 산하단체와 함께 해산되었다. ‘조련’의 초기 주요업무는 ‘귀국조선’이었으나 차츰 경제활동과 교육문제, 특히 재일조선인의 인권과 민족교육이 운동의 핵심목표가 되었다. 점령군의 재일조선인 정책은 ‘외국인등록령’과 ‘강제퇴거’ 조항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령’으로 재일조선인을 소수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점령군뿐 아니라 일본공산당도 ‘조련’의 조직을 소수민족 활동으로 인식했으며, 형식상 일본공산당의 지도아래 ‘조련’의 대중운동을 편입시켰다. 그러나 ‘조련’의 대중운동은 실제로 일본공산당의 명령대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으며, 일본공산당원인 ‘조련’의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로,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조선인부인 ‘민대’에서 담당했다. 1949년 ‘조련’해체 이후 1951년 1월 ‘민전’이 새롭게 출범한다. ‘민전’ 산하의 비합법적 행동조직인 ‘조방대’(祖國防衛隊, 組防隊)는 “형식상 일본공산당의 ‘민대’의 지도하에 있었으나, ‘조방대’는 일본공산당의 지도가 아니라 재일조선인’에 의한 자립적이고 독자적인 단체로 되어갔다[5].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2년 일본공산당 산하의 ‘민대’의 지시로 “문화서클을 만들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을 조직화”하라는 문화 활동 강화방침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서클운동이 전개되었다. 재일조선인의 정치적 작용으로 1953년 ‘오사카 시인집단’의 기관지 『진달래』를 시작으로 일본전역에서 많은 서클이 만들어지는데, 1953년 만들어진 대표적인 재일조선인 문화서클로는 가와사키 조선인서클「대동강」, 동해 조선 문화인협회「문화전선」, 아이치 문화서클「산울림」, 쓰루미 조선 문화연구회「조문연」, 후쿠오카 조선인문예동호회「거친 파도」등이 있었다[6].

박원준은 1953년 『인민문학』 4월호에서 「재일조선 문학대회 보고」[7]에서, 해방 후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김 달수, 허 남기 등 유능한 작가를 길러낸 ‘재일조선 문학회’가 ‘조련’ 해산 후 여러 사정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었으나, 3년 만에 제4회 총회를 열면서 다시 재건되었음을 알린다. ‘재일조선 문학회’는 여러 서클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진달래』가 “조선인 문학서클 운동의 한쪽의 기수”라고 응원하면서, 1953년 『문학보』 제4호에서는 박 실의 「쫓겨진 계타」, 이정자의 「감옥의 친구에게」를 『진달래』 제3호에서 전재(轉載)하면서 ‘오사카 시인집단’과의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김 달수의 「싸우는 조선 문학」에서 ‘재일조선 문학회’의 약점은 예술지상주

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문화공작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8]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일조선 문학회’의 문화정책은 『진달래』의 창간사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민전’의 문화정책방향이었다.

1954년 ‘재일조선 문학회’ 기관지로 창간된 『조선문학』에서 남 시우는 제4차 ‘민전’전체대회의 결의와 같이 공화국의 “김 일성원수의 가르침을 받들고, ‘민전’ 깃발 아래에 단결하여 일본의 민주주의적인 인민들과 광범히 제휴하여” 함께 싸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화선전선동보고』에서는 작금의 재일문학자들은 “우리 민족어와 또는 민족적인 문화예술의 창작과 활동”에 미온적이며, 전근대적이고 사상적으로도 낙후되었다고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 재일문학자들은 ‘대중 속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전’은 조직의 모든 힘을 반미투쟁에 집중했지만, 한국전쟁의 휴전협정과 일본의 한국전쟁에 의한 경제특수효과로 시작된 고도성장 분위기 때문에 운동방향은 크게 바뀌게 된다. 특히 재일조선인은 조국과 단절되어 자력으로 생활재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를 맞이하면서 자연히 ‘재일’이라는 자신들을 응시하게 된다. 1954년 『진달래』 제6호에서는 ‘재일조선인 문학회’ 김 민이 김 시중 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나의 벽을 무너뜨리자」라는 글에서 ‘미일반동이 광란’하고 있는 일본 땅에서 문학운동으로 극복하자는 것도 이러한 민족운동의 위기감에 대한 격려의 글로 읽을 수 있다.

『진달래』는 창간 초기에는 ‘민전’의 조직 강령 아래 ‘반미’·‘반요시다’·‘반이승만’이라는 극좌적 프롤레타리아의 정형화된 시를 생산하였으나,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재일’로서 자신들의 모습을 응시하게 된다. 제3호에서는 ‘생활의 노래’라는 특집을 마련하면서 창작의 주제를 관념적 조국이 아니라, ‘상실감과 처참한 환경’에 놓인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 등으로 확장시키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일’로 인식하게 된다.

2.2 노선전환과 조총련의 재일조선 문학회

동아시아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재편과 함께 재일조선인의 민족운동은 ‘민전’에서 ‘조총련’으로 노선이 전환되어 1955년 5월에 새롭게 출발한다. ‘노선전환’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던 것은 1954년 8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 일 외무상성명’으로,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거주 및 취업의 자유, 생명과 재산의 안전, 민족교육 등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남 일 성명을 계기로 재일조선인은

일본공산당의 지도가 아닌 조선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그동안 '민전'의 운동정책은 전부 수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진다. 즉 일본공산당에 의한 지도 및 피지도의 관계 및 사고방식 등을 모두 버리고 공화국의 '조선노동당'과 결부되는 노선만을 따르자는 것이다[9].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출발한 '조총련'은 일본공산당과의 공동투쟁이라든가, '재일'의 특수성과 주체성을 기반으로 전개된 '민전'의 운동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오로지 공화국의 재외공민으로서의 강령만이 정당한 것이라고 선언한다. '조총련'은 점차 '조선노동당'의 방침을 의식적으로 규범화시키면서, '조선노동당'과는 피지도의 형태로 자신들의 존재방식을 규정해 갔다.

1954년『조선 문학』창간호에서 '조선 문학회'는 오사카에서 열린 '민전' 제4차 전체대회의 소식을 전하며, '민전'의 깃발아래 전진하자고 했으나, 1955년 노선전환 이후 '조총련'의 산하 조직이 되면서 정치적 입장은 바뀌게 된다. '재일조선 문학회'는 공화국의 제2차 조선작가대회 결정을 자신들의 행동 강령으로 정하고, "우리 재일본 조선작가들은 조국에서 달성된 문학의 제성과를 일본 인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양국 인민을 더욱 긴밀하게 단결 시키는데 이바지할 임무"가 있다고 선언하며, 자신들은 "작가이기 전에 한 공민이며 혁명적 투사"이며, "낡은 사상 잔재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인간 장성을 촉진시키고 교양하는 이른바 인간정신의 기사"[10]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에게 문학자의 역할은 '혁명적 투사', '선전선동가', '인간정신의 기사'이며 '조총련'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그룹은 반애국적 그룹으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따라서 '조총련'의 충실한 문학그룹인 '재일조선 문학회의'의 위원장 허 남기와 부위원장 남 시우·김 민은 1957년에는 공화국 '조선작가동맹'의 정식 맹원으로 선출되게 된다.

같은 시기 『진달래』는 권 경택·이 정자·김 시종 등의 특집을 꾸미며 문학적 평가와 함께 상호비평을 실으면서 시지로서 충실도와 시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였으나, 재일조선인 운동의 노선전환으로 상황은 바뀌게 된다. "조선인은 조선어로만 조국을 노래해야 한다"는 '조총련'의 방침으로 일본어로만 글쓰기를 하고 있는 『진달래』는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민전'에서 가장 주목 받은 서클 시지였던 『진달래』는 엄청난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며, 소위 '유민의 기억'이라는 민족적 주체성을 상실한 민족 허무주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재일본조선문학회'와 『진달래』의 갈등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조선 문예』와 『진달래』의 갈등

3.1 공화국공민과 재일

김 시종은 1954년 『진달래』의 1주년을 기념하여 자신들의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실생활과 거리가 있는 '조국'에 관한 주제와 획일적인 정치성과 사회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재일'이라는 주제의 특집을 마련한다. 권 동택은 엄혹한 일본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재일' 어머니의 삶을 「시장의 생활자」에서, 이진신은 민족교육투쟁현장을 「교사가 되어」에서 묘사하고 있다. 또한 홍 중근의 「외국인등록증 훈계」, 방 일의 「파란 수첩」, 김 회구의 「오사카 길동통이」 등 많은 재일생활 작품들은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비국민으로 전락한 '재일' 디아스포라의 분노와 애환을 생생하고 소박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홍 윤표는 『진달래』 제15호에서 김 시종의 시집 『지평선』을 「유민의 기억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문제제기를 한다. '재일조선 문학회'의 허 남기가 시점과 관점을 언제나 조국에 두었다면, 김 시종은 '재일조선인'에 두었다. 재일조선인에게 가장 시급한 자기혁명의 프로세스는 보이지 않고, 재일조선인의 비참한 현실만을 표현하는 '퇴행적인 유민의 기억'같은 서정만을 김 시종은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김 시종의 시는 조국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약한 것으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모습이나 자기변혁의 의지가 없는 부르주아의 사상[11]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그러나 김 시종 자신은 아직 공화국의 "공민으로서의 긍지를 내세울 만큼 조국이 생활화되어있지는 않다"고 하면서,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조국과 고향을 상실한 현실과 "일본어가 아니면 일할 수 없는 기형화된 조선청년"들의 문제가 '재일'의 문제이며, '유민의 기억'은 말살되어야 하는 주제가 아니라 더욱더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역설한다[12].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재일'이라는 자각이 필요한 것이지 말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재일'이라는 존재가 시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57년 『조선 문예』 제7호 권두언에서는 '재일조선 문학회'의 창작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국주의와 평화적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일작가들은 이러한 사명감을 작품 속에 반영하라고 지시한다. 허 남기는 「김 시종동무의 일본어문 시집 『지평선』에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나는 김 시종 동무가 자기의 발판을

다시 한 번 살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발의 위치와 발의 각도를 다시 한 번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13].”며, 김 시중의 ‘재일’에 관한 창작 태도를 직접 비판하며 나선다. 그러나 김 시중은 자신의 시는 “외국인이 일본어로 할 수 있는 보다 조선적”인 표현으로, ‘재일’ 시인으로서 민족적 경험을 일본에서 일본국민과도 소통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제하면서 “나에게는 시밖에 없고, 이 시와 투쟁할 수 있는 것은, 또 투쟁해야 하는 것은 시이다. 오로지 시뿐이다” 라고 하면서 정치와 문학을 분리한다.

1959년2월『진달래』폐간 때까지 겨우 남은 김 시중, 정 인, 양석일 등 3인은 초기의 정치주의를 청산하고 ‘시의 존재방식’과 ‘유민의 기억’등의 논쟁을 통하여 ‘재일’문학자로서 거듭나게 되지만, ‘조총련’의 정치적 압박에서 이들은 오사카시인집단의 서클해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김 시중은「맹인과 뱀의 입씨름」에서 자신을 “재일이라는 부사를 지닌 조선인[14]” 라고 규정하면서 공화국공민이라는 긍지나 민족적 자각도 고귀하지만, 시중일관 조국의 모방이나 정형화된 의식을 강요한다면, ‘재일’인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문학은 성립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진달래』의 재일청년들은 ‘조총련’의 강요된 애국심에 의해서 이념적으로는 정형화된 조국을 갖고는 있지만, 일본에서 자본주의의 삶을 영위하면서 조국을 ‘생활화된 실체’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에 열등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김 시중은 이러한 근원적인 현상은 ‘재일’에서 오는 것이며, ‘재일’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떠한 창작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전투적이고 ‘자기변혁의 프로세스’만을 보이는 시를 더 이상 쓸 수 없었고, 비평정신의 심화와 문학적 향상을 고민하며 더 많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자긍심은 있지만, 더 이상 ‘공민’으로서의 정형화된 애국심과 정치에 복무하는 글쓰기만을 할 수는 없었다.

3.2 주제와 창작언어

‘조총련’의 강령에서는 젊은 재일조선인에게 모국어교육과 민주민족교육을 실시하여 탈식민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따라서 ‘조총련’은 문맹퇴치운동과 함께 우리말과 문학을 정치적 교양활동방침으로 채택한다. 허 남기를 위원장으로 한 ‘재일조선 문학회’는 ‘모국어에 의한 창작활동’ 방침을 1957년11월『조선 문예』제8호에 발표하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그에 입각한 창작 상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어에 대한 노력을 독려’한다. ‘재일조선 문학회’는 제18호까지 서클기관지를 간행한 『진달래』의 조직역량을 칭찬하면서도, 일본어로만 창작된 것에 불만을 나타낸다. “국어를 시급히 습득하라는 것은 시를 쓰기 이전에 조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며, “조선민족으로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선어가 가장 기본”이며, 만일 일본어에 의한 작품이라면 “조선민족의 입장과 의식이 철저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다. 허 남기와 류 벽은 ‘재일조선 문학회’ 상임회의에서 “국어로 쓴다는 문제는 조선 사람으로서의 인간회복이며 주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라며, 모국어와 민족의식 고취에 관한 글쓰기를 강요한다[15]. 그러나 김 시중은 “『진달래』의 시인들이 처음부터 무슨 고상한 목표를 앞에 내걸고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16]”며, 재일조선청년들의 현실과 모국어로 창작하기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 그렇지만『진달래』에서도 ‘민족적 주체성 확립’이란 주제로 제기된 ‘조총련’의 모국어 글쓰기운동에 열심히 동참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즉 모국어 글쓰기를 위한 조선어 공부 실 (7호, 8호, 9호)을 만든다든지, 국어작품으로는 7호부터 12호까지 각각 1편씩 게재하고 있으며, 제13호에서는 「모국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격려의 글이나, 13·14호에서는 국어작품이 각각 5편이나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김 시중은 ‘재일’의 시는 슬로건이 아니라 진실해야 하는데 노선전환으로 새로운 형태의 애국심을 지나치게 요구받고 있다. “조선인이 일본어로 시를 쓴다는 것”이, 마치 ‘민족적 사상성 결여’로 비난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재일’의 현실이며, 이것 또한 시적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시를 쓴다는 것과 애국시를 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일본어로 시를 쓴다 해서 국어시에 신경 쓸 필요”는 없으며, ‘재일’이라는 환경과 특수성은 조국과는 다른 ‘창작상의 방법론’으로 구현되어야 한다[17]고 역설한다.

조 삼룡도 김 시중의 발언을 이어서 조선어로 써야 한다는 고민과 의식이 진심으로 재일청년 문학자들의 “의식 질서에서 유래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일본어로 자신을, 세계를, 우주를 인식해 온” 우리들에게 “조급하게 ‘조선어로 써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형화된 의식’이며, 이것은 “기형적이며 우리들 재일조선청소년들의

****10호는 국어작품이 없으며 15호부터는 인쇄가 공판으로 바뀌면서 국어작품을 기술적으로 실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정과 함께, 다음에 전부 모아서 계간으로 발행할 예정이라는 공지도 있었지만 끝내 실행되지는 못했다.

순수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시인에게 있어서 의무는 “대중을 위해 시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보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일반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다. “시에 관한 영혼의 기사라는 표현은 통용되지 않”으며, “아무리 훌륭한 시인이 아무리 좋은 시를 쓴다 해도 독자의 감성과 정신의 적극적인 작용이 없다면 독자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시여야”하고, “애국지성을 토로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시라는 형식”을 취하지 말아야한다며 [18], ‘조총련’의 지시와 간섭에서 문학은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조총련’ 문화정책에 대한 반발이며, ‘조총련’으로부터의 이탈을 예고하는 전초전이였다. 다음 장에서는 문학자그룹과 ‘조총련’과의 갈등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4. ‘조총련’의 역할

『진달래』안의 문학적 자각을 한 그룹은 1959년2월 『진달래』폐간이후, 같은 해 6월 『가리온』을 창간한다. 『가리온』의 창간사에서는 ‘조총련’과의 정치적 갈등이 소위 『진달래』논쟁의 배경이 되었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조국은 공화국이고, ‘조국’에 대한 충성은 변함없으며, 문학적 견해만 달랐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조총련’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가리온』도 겨우 제3호로 막을 내리게 된다. 민족운동조직에서 문학자는 나약한 개인이며, 조직의 힘은 문학매체에서 발표기회도 막을 수 있었던 시기였다.

다음은 『진달래』를 대표하는 김 시종이 ‘조총련’을 대리한 『조선 문예』와의 대립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김 시종은 1956년 『진달래』제15호의 「정책발표회」와 1957년 제17호 「로봇의 수기」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금단의 영역이며, 절대 선(善)이었던 공산주의, 민족주의, ‘조총련’과 맞서게 된다. 김 시종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작품의 완성도나 표제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현실의 재일조선인 삶과 동떨어진 민족운동과 조직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조총련’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작가정신의 투영이었다. ‘조총련’조직에 대한 “컴플렉스 따위는 없지만 일단 책상을 향해 붓을 잡게 되면, 잠재의식적 콤플렉스가 머리를 들고, 순간 글을 쓸 수 없게 되거나 무언가 조국을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 관념에 속박[19]” 당하면서도 태연스럽게 지고지순한 민족주의자가 되는 재일조선인 문학자들의 위선적

언행에 대한 자기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 시종은 제 18호에는 더욱 강하게 ‘조총련’을 조롱한 『오사카 조총련』을 발표하면서 『조선 문예』와 크게 충돌한다.

① 알림(고시)

급한 용무가 있으시면/서둘러 가 주세요./조총련에는/전화가 없습니다.//급하시다면/소리쳐주세요./조총련에는/접수처가 없습니다.//불일이 급하시다면/다른 곳으로 가 주세요./조총련에는/화장실이 없습니다.//(중략)/속은 어차피 섞어있습니다./결만 번지르르하다면./우리의 취미로는 딱 입니다./화장실은 급한 대로 쓸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생략)

② 동원

동지가 죽었습니다.//(중략)/가운데는/가족 분들로 울음 섞인 목소리./그 뒤로는 /왈지떨어지는 소리./교통 손사가 달려와서는/길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마을사람은 총출동입니다./애국자를 지켜봐 주었습니다./조총련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모두가 지켜봐 주었습니다.//그래서 동지는 영면합니다./죽어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이제 곧 굴뚝에서/즐거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지켜봐 주십시오 [20].

①알림(고시)과 ②동원이라는 표제로 묘사한 「오사카 조총련」을 김 시종은 무능과 불통, 진정성 없는 애국심 강요와 위선적인 조직이라고 야유하고 있다. 당시 ‘조총련’의 일상생활은 “결혼식 축사에 일제 36년으로 시작하여 국내외 정세보고로 끝나는 민족 지향적 경로”를 강조하거나, “공화국 내각 각부의 책임자와 동일한 말투로 민주기지 건설의 성과에 관해 감격적으로 말하”며, 반드시 ‘희망찬 조국건설’로 끝맺음하는 것이 관행처럼 된 코미디와 같은 조직[21]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문예』는 김 시종의 ‘조총련’에 대한 풍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김 시종이 직접 참가한 ‘재일조선 문학회’ 상임회의에서 『진달래』와 김 시종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는데, 립 경상은 김 시종의 「오사카 조총련」의 발표 의도나, 문학적 자세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조국건설에 대한 사상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한다. 김 한석도 “우리는 작가 시인이기 전에 혁명가 애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점에 철저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길에 벗어나고 말 것이다. 「오사카 조총련」을 비롯한 『진달래』의 일련의 작품들을 보면 그 내용이 이 원칙에서 벗어났으며 재일동포들의 생활모습 또는 조국에 대한 감정을 올바르게 그려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유랑민적인 감정으로 염세적 작품들을 창작하는데 그치고 있다[22].” 며, 『진달래』의 ‘조총련’ 비판 작품들은 재일조선인의 ‘유랑민적인 감정’으로, 염세적이고 비애국적인 사상성이라고 몰아붙인다. 그러나 김 시중은 “작품을 쓰기 이전에 튼튼한 사상성을 가져야 한다는데 나는 반대”하며, 시를 써가면서 사상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규정할 수 있는 면과 규정할 수 없는 면”이 있는 것처럼, “사상성과 자기내부를 떼어서 볼 수 없는 면”이 있다. 현대시는 이제 “구호나 슬로건만을 그려낸 문학의 시기”는 지났다며[23] 김 시중은 뜻을 굽히지 않는다.

‘재일조선 문학회’와 ‘조총련’은 『진달래』의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그동안 조국건설에 관한 투쟁보다도 일본의 제 모순에 관한 투쟁 등을 잘못 전개한 ‘민전’의 지도방침 때문에 생긴 비애국적 사상이라고 치부한다. 때문에 ‘민전’의 지도아래 있던 『진달래』는 이제라도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문학적 복무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진달래』는 1957년 11월 제19호를 발행하고, 거의 1년이 되는 1958년 10월 제20호를 출간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5. 결론

해방 후 일본에서 ‘재일조선 문학운동’은 민족운동조직과 연동하여 일어난다. ‘민전’의 문화정책으로 출발한 ‘오사가 시인집단’ 기관지 『진달래』와 1955년 노선전환으로 인한 ‘조총련’산하 ‘재일조선 문학회’의 기관지 『조선 문예』와의 갈등, 모순, 대립은, 조국분단의 고착화로 생성된 ‘재일’이라는 정체성과의 충돌이며, 동시에 70년대 재일조선인문학의 원동력이 되었다.

1955년 ‘민전’에서 ‘조총련’으로 운동주체가 바뀌면서 ‘조총련’은 재일조선인을 조선혁명의 담당자로 재인식하고, 조국통일과 독립, 공화국국민으로서의 권리옹호로 운동방향을 전환하면서 ‘재일조선 문학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족운동에 기반을 둔 문학자들은 해방직후 재일조선인 문학을 일본문학의 한 지류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민족어로 쓰고 읽어야 한다는 꿈을 꾀다. 모국어를 배앗긴 민족이 언어를 회복하는 지점에서 당연한 운동방향이었으나, 현실은 일본어밖에 표현할 수 없는 재일 청년들에게는 모국어로 창작한다는 것은 큰 고충이었다. 또한 모국어 글쓰기가 ‘조총련’에게 애국심의 척도로도

인식되어지는 것은 ‘재일’로서의 현실적인 삶이 부정되어지는 것이며, 조선 인민공화국의 ‘공민’이라는 인식과 정형화된 조국과 애국심은 현실의 ‘재일’로서의 삶과 충돌하는 지점이 되었다. 때문에 『진달래』의 문학자로 작가하던 그룹과 조총련을 기반으로 한 『조선 문예』는 갈등이 증폭되었다.

‘조총련’은 더 나아가 『조선 문예』를 통하여 문학을 단순하게 정치수단의 프로파간다로만 여긴다든지 일본어가 아닌 모국어로만 창작활동을 강요하는 문화정책을 펼친다. 결국 『진달래』를 기반으로 한 ‘재일’로서 문학적 자각을 한 그룹은 ‘조총련’에 의해서 침묵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학적 활동이 공화국문학이라는 큰 틀에 편입되어 조직적으로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로만 형성되는 것에 반발하게 되고, 이들 중 일부는 ‘조총련’을 이탈을 하면서 1970년대 일본의 상업적 문단에 ‘재일조선인문학’으로 재등장하게 된다.

해방 후 재일조선 문학운동은 창작언어와 주제 의식, 나아가서는 민족과 조국,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과 투쟁의 역사였다. 구종주국 일본이라는 엄혹한 환경과 재일조선인 민족조직 안에서 끊임없는 내부대립과 분열에 직면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문학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오로지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존재와 문학적 실존방식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해방 후 재일조선인 문학운동 연구를 더욱 확장·발전시킨다면 ‘재일조선 문학회’ 이후의 ‘문예동’에 대한 재평가 및 재일조선인문학의 원류를 찾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 Chikanobu. (2007). Shimomaruko Cultural Group and its Age -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Southern Circle Movement in the 1950s. *Contemporary Thought—Special Feature on Post-War Popular Mental History*, 35(17), 38-101.
- [2] K. O. Ma. (2019).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Journal of the Korean -Japaneses Joseon Literary Society - From a national culture movement perspective.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10 (1), 95-102. DOI: 10.15207/JKCS.2019.10.1.095
- [3] K. O. Ma. (2015). A Study on Korean Circle Poetry Magazine in Japan in the 1950s 『Jindalrae』-The Realities of Conflicts and Controversies in 『Jindalra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67, 151-166. DOI: 10.18631/jalali.2015..67.009

[4] M. Kim. (1954). Let's Pay Attention to the Literary Liter circle Movement. *Chosun Literature*, 1, 9-12.

[5] H. Kajimura. (low) I. D. Kim(translation). (2014). *1945-1965 Movement of Koreans in Japan after Liberation*. Seoul:Seon-in. 76-84.

[6] K. O. Ma. (2014). A Study on the Osakashi Group "Jindalrae"-Record of Circle Poetry Magazine and Poetry in the '50s-.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28, 565-584.

[7] T. J. Park. (2011). Korean Literature Convention in Japan. *People's Literature*, 9, 133.

[8] D. S. Kim. (1953). Fighting Korean Literature and Arts. *Literature*, 4(18), Tokyo

[9] H. Kajimura. (low) I. D. Kim(translation). (2014). *1945-1965 Movement of Koreans in Japan after Liberation*. Seoul:Seon-in. 102-105.

[10] S. W. Nam. (1956). On the basic task posed by the reality, *Chosun Literature*, 3, 3-12

[11] Y. P. Hong. (low) K. O. Ma et al. (translation). (2016). About Yumin's Memory-From Special Report "Horizon". *Jindalrae and Garion* 3. Seoul: Knowledge and Culture.

[12] S. J. Kim. (low) K. O. Ma et al. (translation). (2016). Wrestle of the Snake and the Blind, Handwriting of the Robot, Osaka Frenzy, Blind and Mouth Wrestling. *Jindalrae and Garion* 4. Seoul: Knowledge and Culture. 12.

[13] N. K. Heo. (1957). In Relation to Japanese Poems of Kim Si-jong's Poems of the Horizon. *Chosun Literature*, 7, 13.

[14] S. J. Kim. (low) K. O. Ma et al. (translation). (2016). Wrestle of the Snake and the Blind, Handwriting of the Robot, Osaka Frenzy, Blind and Mouth Wrestling. *Jindalrae and Garion* 4. Seoul: Knowledge and Culture 173-176.

[15]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Literature Society. (1957). General report and current policy. *Chosun Literature*, 8, Tokyo, 1- 18.

[16] S. J. Kim. (1957). The Seventh Discussion of the Korean Literature Society in Japan. *Korean Art and Literature*, 8, 42-46.

[17] S. J. Kim. (1957). The Seventh Discussion of the Korean Literature Society in Japan. *Korean Art and Literature*, 8, 42-46.

[18] S. R. Jo. (low) K. O. Ma. et al. (translation). (2016). Formal Consciousness and Poetry. *Jindalrae and Garion* 4. Seoul: Knowledge and Culture. 253-267.

[19] S. J. Kim. (low) K. O. Ma et al. (translation). (2016). Hapyeong Note. *Jindalrae and Garion* 4. Seoul: Knowledge and Culture. 201.

[20] S. J. Kim. (low) K. O. Ma et al. (translation). (2016). Osaka Korean association in japan. *Jindalrae and Garion* 4. Seoul: Knowledge and Culture. 173-176.

[21] S. J. Kim. (low) K. O. Ma et al. (translation). (2016). Blind and Mouth Wrestling. *Jindalrae and Garion* 4. Seoul: Knowledge and Culture. 177-190.

[22] H. S. Kim. (1957). The Seventh Debate on Korean Literature in Japan. *Korean Art and Literature*, 8, 43.

[23] S. J. Kim. (1957). The Seventh Discussion of the Korean Literature Society in Japan. *Korean Art and Literature*, 8, 42-46.

마 경 옥(Kyoung-Ok Ma)

[정회원]



- 1985년 2월 : 상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문학사)
- 1988년 2월 : 상명대학교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문학석사)
- 2002년 3월 : 일본 니쇼각사대학대학원 근현대문학연구 (문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일본문화관광컨텐츠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재일문학, 재일에스닉잡지
- E-Mail : bisangma@kdu.ac.kr